KARDIAN
카 디 안 자 산 운 용

판매회사
내부직원용

# 카디안 퇴직연금 업종일등 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026년 02월말 기준

##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국내 국공채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채권모투자신탁(카디안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 제1호[채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하는 주식모투자신탁(카디안 퇴직연금업종일등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신탁재산의 40% 이하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등의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신용위험을 최소화 하면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함께 투자한 채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추구합니다.

- 신탁재산의 40% 이하를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354억 원

-채권모투자신탁 1,095억 원

-주식모투자신탁 1,030억 원

**펀드유형**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 채권편입비: 60% 이상
- 주식편입비: 40% 이하

**설정일**

(운용펀드 : 2006년 01월 05일)

- 클래스 C : 2011년 11월 01일
- 클래스 C-E : 2017년 08월 18일
- 클래스 C-F : 2012년 03월 30일

**벤치마크** KOSPI 35% + 매경BP종합(국공채) 40% + 매경BP종합(A-이상회사채2~3년) 20% + KAP Call 5%

**신탁업자** 국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 구분 | 기준가격 적용일 | 환매대금 지급일 |
|---|---|---|
| 17시 이전 | 3영업일 | 4영업일 |
| 17시 경과후 | 4영업일 | 5영업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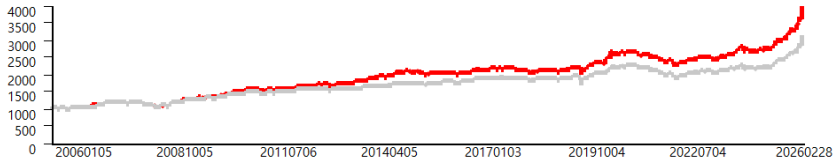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위험)

| 1 | 2 | 3 | 4 | 5 | 6 |
|---|---|---|---|---|---|

## 펀드 운용 성과

| | 누적수익률 | | | | | | | |
|---|---|---|---|---|---|---|---|---|
|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 설정이후 |
| 운용펀드 | 7.24% | 21.54% | 30.39% | 43.50% | 54.23% | 64.14% | 51.81% | 292.66% |
| 클래스 C | 7.18% | 21.32% | 29.91% | 42.40% | 51.84% | 60.32% | 45.90% | 134.66% |
| 클래스 C-E | 7.20% | 21.39% | 30.07% | 42.77% | 52.63% | 61.58% | 47.85% | 78.90% |
| 클래스 C-F | 7.22% | 21.46% | 30.21% | 43.10% | 53.34% | 62.72% | 49.60% | 135.50% |
| 벤치마크 | 7.06% | 18.31% | 26.68% | 39.04% | 43.11% | 53.11% | 40.18% | 206.96% |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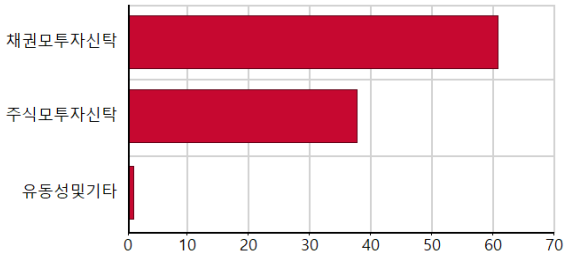



출처: AITAS시스템

## 자산 구성 현황 (2026년 02월말 기준)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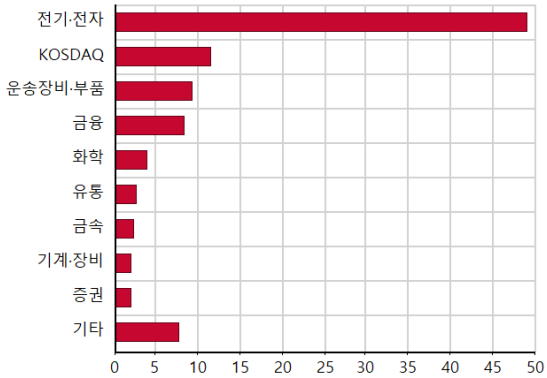
| 순위 | 자산명 | 비중(%) |
|---|---|---|
| 1 | 채권모투자신탁 | 61.2 |
| 2 | 주식모투자신탁 | 37.7 |
| 3 | 유동성및기타 | 1.1 |




<주식 업종별>

주식모투자신탁 편입 비중

| 순위 | 자산명 | 비중(%) |
|---|---|---|
| 1 | 전기·전자 | 49.2 |
| 2 | KOSDAQ | 11.5 |
| 3 | 운송장비·부품 | 9.4 |
| 4 | 금융 | 8.4 |
| 5 | 화학 | 4.1 |
| 6 | 유통 | 2.7 |
| 7 | 금속 | 2.5 |
| 8 | 기계·장비 | 2.2 |
| 9 | 증권 | 2.1 |
| 10 | 기타 | 7.9 |




## 자산별 상위 5개 보유 종목 (2026년 02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 채권TOP5 | 비중 (%) |
|---|---|
| 국고02250-2806(25-4) | 11.7 |
| 롯데카드539-4 | 7.3 |
| 국고03750-3312(13-8) | 4.7 |
| 국고채권02750-2812(25-10) | 4.6 |
| JB 우리캐피탈530-4 | 4.6 |

| 주식TOP5 | 업종 | 비중 (%) |
|---|---|---|
| 삼성전자 | 전기·전자 | 27.0 |
| SK하이닉스 | 전기·전자 | 14.7 |
| 현대차 | 운송장비·부품 | 4.6 |
| SK스퀘어 | 금융 | 2.4 |
| 삼성전기 | 전기·전자 | 2.3 |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카디안 퇴직연금 업종일등 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026년 02월말 기준

## 보수 및 수수료

###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C : 총 연 0.8% (판매 0.535%)
- 클래스 C-E : 총 연 0.533% (판매 0.268%)
- 클래스 C-F : 총 연 0.295% (판매 0.03%)

(공통사항)

운용 0.23%, 신탁 0.02%, 사무관리0.015%

### 선취수수료

클래스 C, C-E, C-F : 없음

### 환매수수료

없음

##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2월 KOSPI는 전월 대비 19.52% 상승한 6,244.13pt, KOSDAQ은 3.77% 상승한 1,192.7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1월 중 사상 처음으로 5,000pt선을 돌파했던 KOSPI 지수는 2월에도 랠리를 지속하면서 6,000pt를 돌파했습니다. 2월 초부터 약 2주간의 숨 고르기 이후 지수는 연휴 종료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며 레벨업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향되면서 지수 전체의 상승을 이끌었고,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은 것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월 후반으로 가면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 격화는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증시 상승으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상승한 증권, 로봇산업으로의 신성장 모멘텀이 반영된 자동차, 지속적인 실적 추정치 상향이 이루어진 반도체 업종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지수를 단기간에 아웃퍼폼할 만한 모멘텀이 부족했던 미디어와 엔터 투어, 일부 선주들의 중국 조선사로의 LNG선 발주로 인해 선가 상승에 대해 의구심이 생긴 조선 업종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MLCC 가격 상승 기대감과 FC-BGA 기판 수요가 증가하는 전자부품 업종, 경구용 비만치료제 시장 개화가 기대되는 KOSDAQ150 의약 업종, 메모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는 반도체 업종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상법개정안 통과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은행 업종의 언더웨잇, 원전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건설 업종의 부족, 귀금속 가격 조정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 철강 업종 등이 펀드 성과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하이엔드용 MLCC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기, 추론용 낸드 탑재율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파두, 스페이스X 지분가치가 부각되는 미래에셋증권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벤치마크 대비 적게 보유한 기아, LG전자, 한미반도체 등이 펀드 성과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부양 정책에 대한 기조가 확인됨에 따라 KOSDAQ 종목에 대한 비중을 연초 대비 확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소부장, 경쟁력을 보유한 로봇 부품주, 태양광 및 원전 관련 밸류체인, 지분가치가 부각되는 지주사 등의 비중을 확대하였고 일부 모멘텀이 제한되거나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및 종목에 대한 차익실현을 실시하였습니다.

월 초에는 국내 주식시장 강세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강화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어 30년 국고채 입찰 부진과 호주 RBA의 금리 인상 결정에 따른 호주 금리 급등 영향이 더해지며 국내 금리 역시 약세 흐름을 보였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2%를 상회하였습니다. 이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폭은 추가로 확대되었고, 3년물 금리는 약 3.27%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이후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구두 개입, 미국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시장 금리는 점차 하락 전환하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무효 판결 확정 소식으로 미국 재정 우려가 부각되었으나, 환급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관세가 다른 수단을 통해 재부과되면서 시장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후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 관련 긴장감이 고조되며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는 하락하였습니다. 아울러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제시되었고, 새롭게 공개된 K-점도표를 통해 향후 6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금리는 추가 하락하였습니다.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월 말 대비 10.2bp 하락한 3.04%, 10년 금리는 16.6bp 하락한 3.445%에서 마감하였습니다.

##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3월 국내 시장은 1,2월의 강한 상승세 이후 숨 고르기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요 기업들의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었고, 미국 증시가 관세 노이즈와 AI주 불안 등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1,2월 가파른 지수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이란 갈등의 본격화 시 한국 증시의 상승세가 가팔랐던 만큼 단기간에 깊은 지수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생과 금리 인하 가능성 축소를 원치 않음을 감안할 때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은 초기 양측의 강한 공방 이후에 해결책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동안의 지수 상승세가 실적 상승세에 기인했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지수 조정 시 저점 매수 수급이 유입되면서 낙폭을 축소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KOSPI 지수가 반도체 중심의 강한 이익 추정치가 유지되고 있는 점도 반등 가능성을 높게 보는 요인입니다. 반등 과정에서는 주도주 중심의 강세를 예상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하였고, 중동 지역으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자 월초 가파른 주가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해당 이슈의 분쟁 지역이 이란에서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자극하고 향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증시에는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 기업 실적 추정치 상향 흐름에서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 따른 주식시장 지원책이 차별화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부의 코스닥 부양 정책에 대한 의지가 높고, KOSPI 상승률과 KOSDAQ 간의 주가 상승률의 차이가 컸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KOSDAQ의 아웃퍼폼 가능성이 높아 보여 지속적으로 KOSDAQ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업종의 경우 가격 주도의 수출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최소한 26년 상반기까지는 이익 추정치의 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이슈는 반도체 장비 및 소재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될 수 있어 26년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동 전쟁 이슈로 인해 기간 조정을 겪었던 방산 업종에 대한 관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번 중동 전쟁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미사일 무기체계와 감시망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위성 체계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스페이스X IPO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련 업체에 대한 비중을 높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26년에는 로봇 양산 시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해당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도 높게 유지하겠습니다. 의약 업종의 경우 코스닥 내 비중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부양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유동성 유입에 따른 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제네릭에 대한 약가 인하 가능성은 EPS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전통 제약사보다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26년에도 라이선스 아웃이 기대되는 종목 또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의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적으로 편입하여 초과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2월 중 국고채 3년 금리는 기준금리 대비 80bp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경계, 주식시장 강세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약화, 추경 편성 우려, 대외 금리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이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정책당국의 시장 안정 의지와 금통위 점도표에서 인하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나면서 국고 3년 금리는 고점 대비 약 25bp 반락했습니다. 그러나 연내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추가적인 금리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미·이란 전쟁에 따른 환율 상승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은 물가 상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 기저효과로 향후 에너지 물가 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경 편성 가능성 역시 재정 확대 기대를 통해 금리 인상 경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통위 이후 인상 경계감이 일부 완화되었음에도 시장의 잠재적인 인상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진정되기 전까지 금리는 높은 레벨에서 등락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발행 물량 조절과 WGBI 편입 기대 등은 금리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고채 3년 금리는 전고점인 3.29%를 상단으로 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를 고려할 때, 국고채 3년 금리는 2.95~3.30%, 10년 금리는 3.40~3.75%의 레인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펀드는 현재 벤치마크 대비 수준 듀레이션 유지하는 가운데,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듀레이션을 중립 이하로 보수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시장 변동성 확대로 기준금리 2회 인상을 반영한 박스권 상단까지 접근하는 경우 듀레이션을 재차 중립 수준까지 확대하여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높은 절대금리 레벨에 따른 크레딧 캐리 매력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크레딧 이벤트 발생 가능성이 제한적인 가운데 국고채 금리 변동성 완화 속에서 크레딧 투자 심리 또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국고채 금리가 박스권 내 변동성 축소 국면에 진입할 경우, 크레딧 스프레드는 단기간 내 큰 폭의 축소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크레딧 캐리 수요는 견조하게 유지되며 스프레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특수/국고 3년 스프레드는 30~40bp, 은행/국고 3년 스프레드는 30~40bp, 회사AA-/국고 3년 스프레드는 55~65bp, 여전AA-/국고 3년 스프레드는 65~75bp 수준을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펀드는 당분간 현재 여전채 중심 벤치마크 대비 확대 포지션을 유지하는 가운데, 1년 이하 구간 매도 후 절대금리 메릿과 롤링이 좋은 1.5~2년 크레딧 채권으로의 교체 매매를 추진하여 YTM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